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손보영** · 김수정** · 박지아** · 김양희***

초 록

본 연구는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총 2,378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부모의 세 가지 바람직한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에 따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셋째, 학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세 가지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모두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아탄력성→삶의 만족도' 경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제어 :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 삶의 만족, 학교생활 적응, 자아탄력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동청소년패널 대학원생 논문 공모에서 우수논문으로 입상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kumryang@naver.com, 02-3277-4144

I. 서 론

최근 청소년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 시작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평균 11세(범위 8-13세), 남자 청소년의 경우 평균 12.7세(범위 9-14세)(대한 의학회, 2011)로 과거에 비해 사춘기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신미 외, 2010) 이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학업 수행이라는 스트레스도 경험한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진입단계에 해당되므로 이 시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안정된 정서는 이후 청소년기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1년도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점수는 66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이는 2009년 64.3점, 2010년 65.1점에 이어 3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결과로 한국 청소년의 삶에 대한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염유식, 2011). ‘물질적 행복’ 영역점수가 중상위를 차지한 것(박종일 외, 2010)을 감안해본다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그에 못미친다는 것으로, 한국 청소년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삶에 대한 행복감 및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처 및 중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심리학과 관련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들이 이뤄져 왔으나(김남희, 2005; 김명소 외, 2001; 문은식, 2007; 200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연, 2008; 채윤실,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의 자신의 삶을 잘 수행해 왔으며 스스로 만족함(Diener & Fujita, 2005)을 말한다. 따라서 만족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Diener & Fujita, 2005) 이들의 만족감에 대해 고찰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관련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만족감에 대한 여러 연구 중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대인 간 특성파도 관련이 있었다(신미 외, 2010).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발달특징과 더불어 교육 제도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김혜원·홍미애, 2007).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노년기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관한 많은 관심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초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 삶의 만족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관계 파악을 통해 초기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고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학교 장면과 관련된 것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들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은 다양한 학교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상황에 수용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한유선(1996)의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수록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일 수밖에 없다. Lynch와 Cicchetti(1997)는 또래 집단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교실에서의 만족스러운 수행, 적절한 성취동기 지향은 아동기 단계의 뚜렷한 발달 과제들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기의 학교생활 적응은 성실한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원만한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등으로 이는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주요변인으로 밝혀지면서 아동기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송영경 외, 2011; Bagwell et al., 1998).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은 초기청소년기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의 스트레스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업, 교우 및 교사 관계, 자아성장 등의 심리적 문제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Block과 Kremen(1996)은 학교생활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긴장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조절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성격체계의 능력으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삶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응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탄력성을 살펴 본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자, 2005).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이 더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민숙, 2002). 자아탄력성이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선영, 2008)에서도,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며 학교생활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통제를 잘하고 자신의 상황에 낙천적이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등 주관적 안녕감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민, 2010).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을 조절하여 적응적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개인 내적 변인이라고 본다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 및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자녀 양육유형을 중요 변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양문현, 198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 등 청소년 개인 내적 및 외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정은진(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 중심적이고 민주적, 애정적, 합리적일수록 학교생활 적응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일수록 자녀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하명선 · 이순복, 2009). 또한 이승화(200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으며, 김정애(1999)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적인 부모를 둔 경우 아동이 지각한 학교생활 적응력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 즉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며(김문혜 · 강문희, 1999; Cheng & Furnham, 2004; Nelson & Metha, 1994; Plunkett et al., 2007),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낮은 우울

감(Plunkett et al., 2007) 및 높은 행복감(Cheng & Furnham, 2004)에 영향을 준다. 부모의 자녀양육 유형이 민주, 허용일수록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한유선, 1996). 이는 정은선(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한 돌봄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을 느껴 심리적 안정이 증진되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여기게 되면 우울감이 높아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분류 형태는 다르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김경민, 2010).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활력성과 대인관계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 2010; 김화경, 2009). 이윤주와 신지연(2006)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의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초기청소년 및 이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처럼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초기청소년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부모 양육태도 관련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 양육태도의 전체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양육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각 양육태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서로 달라 이것을 전체 양육태도로 묶었을 때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이고 자율적이며 바람직하게 인식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과 진로결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서 보다 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지원, 2010; 허정철, 2010), 이는 양육태도와 관계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를 포괄적인 변인으로 묶기보다는,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유형이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초기청소년기의 삶의 만족에 대해 중요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8개 유형 중에서 바람직한 부모양육행동으로 제시된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으로, 애정은 자녀에게 언

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되며,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 이되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게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이용주(2010)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친구관계를 제외한 교사, 환경, 생활, 수업 등의 적응 측면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적응적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학령기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어(김미화, 2003; 이용준, 2004; 이은미·박인전, 2002; 정선미·조옥귀, 2006; 하현주, 2007)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남녀 성차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다. 삶의 만족에 있어서도 한유선(1996)은 남학생들이 삶의 전반적 부분에서 여학생들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련 변인 각각에 대한 남녀 청소년 비교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뤄지고 있으나, 각 변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설명되는 경로에 대해 고려된 연구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남녀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에 이르게 있어 관계되는 변인들에 대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남녀 청소년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본 연구에서 함께 고려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그림 1)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 부모의 세 가지 바람직한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는 초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초기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초기청소년 부모의 세 가지 바람직한 양육태도 모두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남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CYPS)’의 자료 중 1차년도인 2010년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의 7년간 실시되는 종단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단기종단 자료이다(김지경 외, 2010).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2,378명(남학생 1,244명, 여학생 1,134명)으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의해 표집되었다.

2. 측정 도구

1) 바람직한 양육태도

본 연구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중에서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애정(3문항), 감독(3문항), 합리적 설명(4문항)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고, 개발 당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아버지(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애정 .84(.82), 감독 .79(.77), 합리적 설명 .81(.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각각 애정 .77, 감독 .69, 합리적 설명 .76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양육태도 하위 각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해당 양육태도를 잘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er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고, 제작자가 보고하는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6이었으며,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연구에서는 .6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문항군을 제작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문항군을 제작한 이유는 SEM분석에서 최대우도법 사용을 위한 가정들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과 개별 문항들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정모수의 증가를 막아 결국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Russell et al., 1998). 전체문항을 1요인으로 가정하고 요인분석한 후, 문항군들의 평균부하량을 같게 하는 방법으로 문항군을 형성하였다(Russell et al., 1998). 문항군의 각각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75, .67, .65였으며 전체는 .85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

3) 학교생활 적응

본 연구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문선모(1977)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교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된 척도이다. 척도의 하위 변인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0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고, 제작자가 보고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학습활동 .81, 학교규칙 .67, 교우관계 .67, 교사관계 .81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학습활동 .70, 학교규칙 .75, 교우관계 .63, 교사관계 .84, 전체 .83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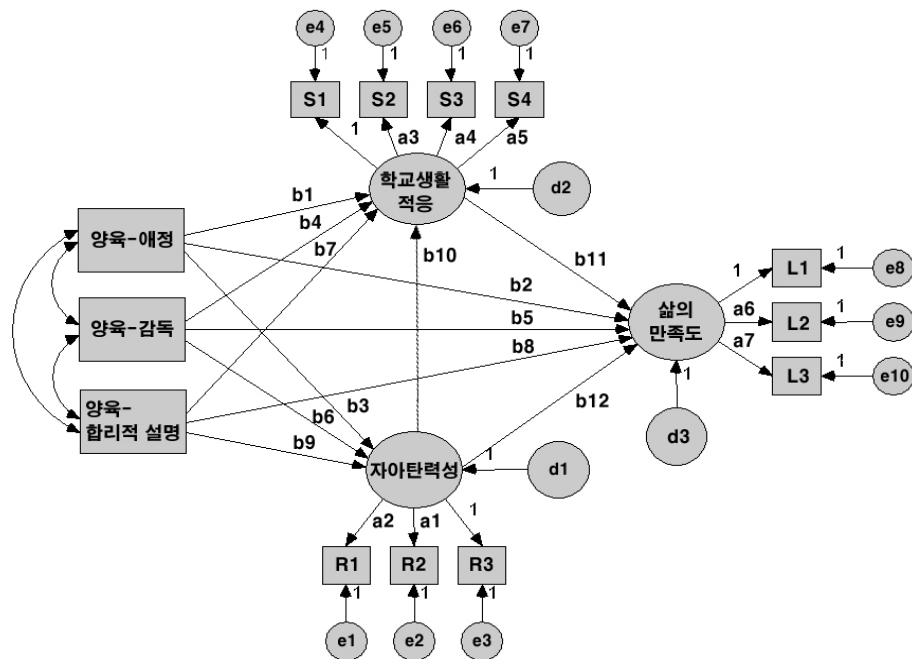
4)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이 개발한 척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고, 제작자가 보고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0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통계 분석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고 남녀 성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 a1 ~ a7: 측정동일성 제약, b1 ~ b12: 구조동일성 제약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검증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측정동일성 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각각의 모형들이 서로 내재된 형태이므로 χ^2 차이검증과 함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는데, 사용된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 RMSEA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를 사용(홍세희, 2000)하였다. TLI와 CFI는 .95 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Hu & Bentl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RMSEA < .05면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PSS 18.0과 AMO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1982, 1986)의 Z공식¹⁾을 이용하였는데, 사용된 Sobel의 Z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 Sa^2 + a^2 Sb^2}},$$

$$Z = \frac{abc}{\sqrt{(bc)^2 Sa^2 + (ac)^2 Sb^2 + (ab)^2 Sc^2}}$$

III. 결 과

모형 검증을 위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상관분석표는 <표 1>에 제시하였는데, 모든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먼저 연구 모형이 남녀 집단 전체와 남녀 집단 각각에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모형

1) a =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Sa = a 의 표준오차, Sb = b 의 표준오차. Sobel의 Z공식에서는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제시된 공식은 MacKinnon & Dwyer(1994)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의 적합도를 통하여 검증하고, 다음으로 다집단 분석을 위하여 남녀 각각의 집단에서 모형의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과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이 성립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모형에서의 요인 적재치를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a1~a7)을 가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MacCallum et al., 1994),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동일한 회귀계수들에 대해서 제약(b1~b12)을 가한 후 경로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Byrne, 2001), 모든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표 2>).

<표 1> 연구 변인의 변인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남 N=1,244, 여 N=1,134)

변 인	1	2	3	4	5	6	7	8	9
1. 부모양육- 애정	-								
2. 부모양육- 감독	.47** (.51**)	-							
3. 부모양육- 합리적 설명	.69** (.70**)	.43** (.40**)	-						
4.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38** (.41**)	.34** (.38**)	.35** (.33**)	-					
5. 학교생활 적응- 학교규칙	.29** (.33**)	.28** (.30**)	.30** (.26**)	.60** (.57**)	-				
6.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42** (.47**)	.35** (.37**)	.36** (.40**)	.60** (.58**)	.53** (.50**)	-			
7. 학교생활 적응- 교사관계	.32** (.37**)	.22** (.29**)	.31** (.35**)	.49** (.49**)	.45** (.43**)	.45** (.41**)	-		
8. 자아탄력성	.46** (.46**)	.39** (.39**)	.46** (.42**)	.47** (.50**)	.43** (.42**)	.57** (.54**)	.41** (.44**)	-	
9. 삶의 만족도	.50** (.50**)	.34** (.36**)	.43** (.41**)	.42** (.42**)	.32** (.34**)	.48** (.48**)	.36** (.37**)	.52** (.55**)	-
평 균	1.76 (1.62)	1.74 (1.53)	1.85 (1.78)	2.06 (1.86)	1.98 (1.81)	2.00 (1.83)	1.96 (1.74)	2.01 (1.95)	1.79 (1.79)
표준편차	.66 (.63)	.67 (.57)	.65 (.62)	.51 (.46)	.52 (.47)	.50 (.46)	.66 (.62)	.50 (.48)	.69 (.71)

주. () 밖의 숫자는 남자 초등학생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자 초등학생의 값임.

** p < .01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다집단 분석 과정에서 남녀 집단의 구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경로별로 자세히 살펴본 결과 b12(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의 경로에서 χ^2 변화량 = 4.576($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구조동일성은 남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로(b12)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는 부분 동일성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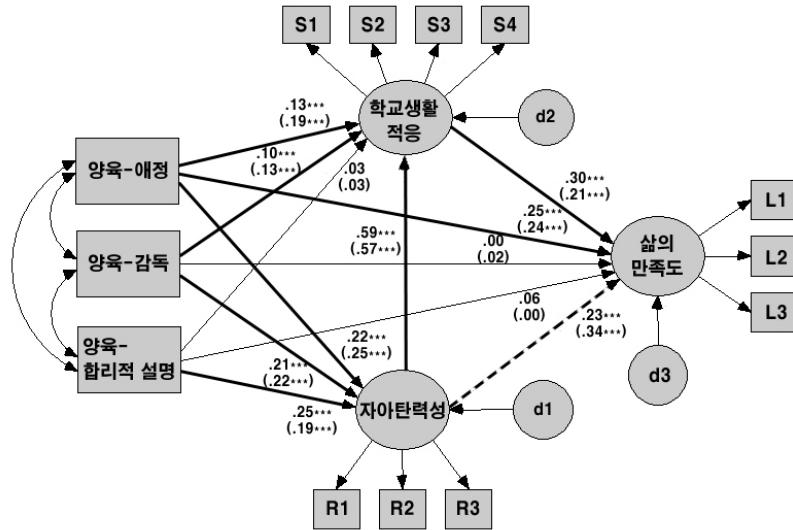
〈표 2〉 모형에 따른 적합도 지수

(남 N=1,244, 여 N=1,134)

모 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전체)	325.850	53	.968	.982	.047(.042-.051)
연구모형(남자)	199.669	53	.966	.980	.047(.040-.054)
연구모형(여자)	180.125	53	.970	.982	.046(.039-.053)
측정동일성 모형	388.562	113	.970	.981	.032(.029-.036)
구조동일성 모형	401.248	125	.972	.981	.030(.027-.034)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남녀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에서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가 남자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23($p < .001$)이며, 여자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34($p < .001$)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여자 초등학교생이 남자 초등학교생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세 가지 하위 형태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처음의 가정과 달리, 남녀 집단 모두에서 애정만이 세 변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감독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에만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인 설명은 자아탄력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그림 2] 연구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주. 굵은 선은 유의미한 추정치, 점선은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추정치.

() 밖의 숫자는 남학생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의 값임. *** $p < .001$

<표 3>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남학생			여학생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학교생활 적응 ← 양육-애정	.130***	.036	.13	.177***	.037	.186
자아탄력성 ← 양육-애정	.191***	.033	.22	.217***	.036	.250
삶의 만족도 ← 양육-애정	.073***	.011	.25	.082***	.013	.244
학교생활 적응 ← 양육-감독	.099***	.029	.10	.132***	.032	.126
자아탄력성 ← 양육-감독	.185***	.026	.21	.210***	.031	.220
삶의 만족도 ← 양육-감독	.001	.008	.00	.009	.011	.024
학교생활 적응 ← 양육-합리적 설명	.026	.027	.03	.022	.026	.029
자아탄력성 ← 양육-합리적 설명	.171***	.025	.25	.126***	.026	.190
삶의 만족도 ← 양육-합리적 설명	.014	.008	.06	.001	.009	.003
학교생활 적응 ← 자아탄력성	.667***	.041	.59	.628***	.041	.571
삶의 만족도 ← 학교생활 적응	.087***	.014	.30	.073***	.018	.208
삶의 만족도 ← 자아탄력성	.076***	.015	.23	.132***	.019	.340

주. *** $p < .001$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경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매개효과 검증(Sobel 검증)

매개 경로	a	Δa	b	Δb	c	Δc	Z
양육-애정 → 학교생활 적응 → 삶의 만족도	.130	.036	.087	.014			3.122 (p < .001)
양육-애정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191	.033	.076	.015			3.812 (p < .001)
양육-감독 → 학교생활 적응 → 삶의 만족도	.099	.029	.087	.014			2.992 (p < .01)
양육-감독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185	.026	.076	.015			4.127 (p < .001)
양육-합리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171	.025	.076	.015			4.071 (p < .001)
양육-애정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 적응 → 삶의 만족도	.191	.033	.667	.041	.087	.014	2.291 (p < .01)
양육-감독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 적응 → 삶의 만족도	.185	.026	.667	.041	.087	.014	2.683 (p < .01)
양육-합리적 설명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 적응 → 삶의 만족도	.171	.025	.667	.041	.087	.014	2.667 (p < .01)

V.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각 형태가 초기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 경로에서 남녀의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 연구들은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인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이 초기청소년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별도의 경로를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으로 정의하고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각 양육특성이 그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과 이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 효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중 애정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김정애, 1999; 이승화, 2001; 정선희, 2002; 정은진, 2002; 신윤자,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초기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있어 애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모 양육태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바람직한 양육태도 중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던 감독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가 단순히 자녀의 상황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전체 삶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는 없으나,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고,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촉진하여 자기를 조절하여(Block & Kremen, 1996),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함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고(강창실, 2008; 한신애·문수백, 2011) 이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합리적 설명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 양쪽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합리적 부모 양육유형이 자녀의 만족감 및 적응을 돕는다는 연구결과(이정화, 2001; 정은진, 2002)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리적 설명의 문항 내용이 상황에 대한 논리적 설명 및 일관적 기준 적용 등의 논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심리적·상황적 과도기에 있는 초기청소년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부모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내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초기청소년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충분한 애정이 바탕이 되지 않은 논리적인 설명과 합리적 기준 적용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함에 있어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는 각각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고 보고한 김경민(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남녀집단 모두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학업에 있어 지적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

을 잘 활용하여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한다(구자은, 2000; 이윤주, 2004; 이혜승, 2004)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유연한 문제해결책략을 동원하여 적절한 반응과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초기청소년의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극복하고 삶 전반에 있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적응 및 만족을 향상시키는 중요 변수이긴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키워주면 학교생활 적응이나 삶의 만족감 등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외적 상황에 대해 내적인 힘을 키워 극복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다른 대안적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남녀 집단 모두 학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송영경 외, 2011; 한유선, 1996; Bagwell et al., 1998)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에서 맺게 되는 관계들이 방과 후에도 연장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적응 및 이에 대한 만족감은 삶 전반의 만족감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및 우울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접근들이 많았다(이영미·민하영, 2004; 이지민, 2007; 이정윤·이경아, 2004).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기의 부적응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으나, 건강한 청소년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응적인 부분에 대한 시사점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초기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이르는 보다 많은 긍정적인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 및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끝으로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각각의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을 본 모형 내 전체 경로에 있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다른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자아탄력적이라는 연구결과(김미화, 2003;

이용준, 2004; 이은미·박인전, 2002; 정선미·조옥귀, 2006; 하현주, 2007)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자아탄력성의 영향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은 높으나 삶의 만족감을 낮게 평가하므로(신미 외, 2010), 여학생들의 경우 삶의 만족감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증진이라는 개입이 남학생에 비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이는 향후 여자청소년들에 대해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외 다른 변인 간 관계들에서는 남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에 적응 및 삶의 만족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 자아탄력성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성별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성별이 부모와의 관계를 다르게 형성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윤지은·최미경, 2004; 이선이 외, 2008; Wamer & Steel, 1999)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문수경, 2005; Wamer & Steel, 1999)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에 있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녀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사춘기의 시작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발달적 과도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을 청소년기로 포함시켜 청소년기 초기단계에 대한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을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초기청소년기 자녀의 적응, 인성, 또래 관계 등 자녀 생활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바람직한 양육태도 각각이 개인 내적 부분인 자아탄력성과 개인외적 부분인 자녀의 적응 및 삶의 만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적 모형 안에서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양육태도 각각이 모형 내 변인들과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초기청소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을 돕는 바람직한 양육태도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애정과 감독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난 합리적 설명도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탄력성 증진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대해

부모의 양육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개입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아탄력성 등의 긍정적인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청소년기 연구들이 부적응, 비행, 우울 등 문제중심의 원인론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및 삶의 만족 등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에 중점을 두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기 남녀 학생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유형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따른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발달 시기에 이들 관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특히 발달 과정 상 큰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등 시기 및 대학생 시기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며, 각 시기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교를 통해 각 시기에 필요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창실(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민숙(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애착 유형과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25권, pp. 40-74.
- 김남희(2005). 희망과 사회적지지 지각,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2호, pp. 19-40.
- 김문혜 · 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제20권 제4호, pp. 195-211.
- 김미연(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200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 임지연 · 김상욱 · 박승호 · 유성렬 · 최지영 · 이가영(2006).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애(1999). 학교개방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 · 백혜정 · 임희진 · 이계오(2010).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연구보고서 10-R01: pp. 1-236).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 김지원(2010). 초등학교 입학 초기의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경(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 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14권 제2호, pp. 269-297.
- 대한의학회(2011). 국민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2011.9.28)
- 문선모(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생활 취업지원센터 학생지도연구, 제4권, pp.19-28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3호, pp. 105-125.
- 문은식(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2호, pp. 459-475.
- 문은식(200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pp. 1-15.
- 민병수(1991).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일 · 박찬웅 · 서효정 · 염유식(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 비교. 한국사회학, 제44권 제2호, pp. 121-154.
- 송영경 · 김영희 · 황성실(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19.
- 신미 · 전성희 · 유미숙(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9호, pp. 131-150.
- 신윤자(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문현(1983).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유식(2011). 2011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성경 ·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pp. 189-206.
- 윤지은 ·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5호, pp. 237-251.

- 이상필(1990).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따른 학업 성적 및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8).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 · 이여봉 · 김현주(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 · 통제적 양육행동. 한국인구학, 제31권 제2호, pp. 45-76.
- 이승화(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제20권, pp. 85-104.
- 이영미 · 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4호, pp. 1-10.
- 이용주(2010). 청소년의 성격적 강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준(2004).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 요인 연구-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3호, pp. 435-449.
- 이윤주 · 신지연(2006).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제5권, pp. 111-127.
- 이은미 · 박인전(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1호, pp. 3-24.
- 이정윤 ·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2호, pp. 261-276.
- 이정화(2001).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중독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2007).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8권 제4호, pp. 1593-1603.
- 이혜승(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407-427.
- 정선미 · 조옥귀(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제18권, pp. 133-158.

- 정선희(2002).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선(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진(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운실(2010). 초등학생을 위한 심리적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1). 2011 청소년통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하명선 · 이순복(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8권 제3호, pp. 247-258.
- 하현주(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 · 문수백(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355-376.
- 한유선(1996).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 환경 및 학교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효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정철(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 504-51.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1-177.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9 No. 1, pp. 140-153.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 Browne, M. W., & Cudeck, P. J.(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heng, H., & Furnham, A.(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5, pp. 1-21.
- Diener, E., & Fujita, F.(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8 No. 1, pp. 158-164.
- Hu, L. Y., & Bentler, P.(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pp. 1-55.
- Lynch, M. & Cicchetti, D.(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pp. 81-99.
- MacCallum, R. C., Roznowski, M., & Reith, J.(1994).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oss-valid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9, pp. 1-32.
- Nelson, D. M., & Metha, A.(1994).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in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dolescence*, Vol. 29, pp. 525-542.
- Plunkett, S. W., Henry, C. S., Robinson, L. C., Behnke, A., & Falcon III, P. C.(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16 No. 6, pp. 760-772.
- Russell, D.,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No. 1, pp. 18-29.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pp.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obel, M. E.(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In N. Tuma(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6*(pp.159-186).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Wamer, E. L. & B. S. Steel(1999). Child rearing as a mechanism for social change: The Relationship of child gender to parents' commitment to gender equity. *Gender Society*, Vol. 13, pp. 503-515.

ABSTRACT

The Effects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ohn, Bo-Young* · Kim, Soo-Jeong* · Park, Ji-Ah* · Kim, Ya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and gender differences which may operate within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s well as any links which may exist between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consisted of 2,378 elementary school fourth-year studen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ach of three the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affection, monitoring and reasoning parenting attitude) had an influence upon ego-resiliency, schoo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beit in different ways. Second, ego-resiliency had a 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Third, school adjustment also had a direc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Fourth,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between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irls and boys only in terms of the path coefficients of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for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boy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desirable parenting attitude,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ego-resilience

투고일 : 12월 12일, 심사일 : 1월 27일, 심사완료일 : 2월 16일

* Ewha Womans University